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6월 21일(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건설심사과	담당자	• 건설관리팀장 윤평상 ☎440-3741 • 담당자 남양환 ☎440-374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대형건설사와 인천업체 만남’

- 인천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확대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
- 21일, 「협력업체 만남의 날」 개최, 건설업 관계자 300여명 참석 -

인천광역시는 인천 지역업체 및 자재·인력·장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대형건설사(20개사), 인천지역 건설사(100여 개) 및 협회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업체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및 산하기관의 건설공사에 대한 원·하도급률, 자재·인력·장비 사용률은 조례에서 정한 70%를 근접 달성하였으나, 통계청 자료에 따른 민간부문에 대한 인천 지역업체 수주 현황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수주율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환으로 이날 개최되는 「협력업체 만남의 날」을 추진하게 되었다.

「협력업체 만남의 날」은 인천 지역업체가 대형 건설업체의 협력사

로 등록하여 하도급 입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형건설사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이근천 시 건설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민관 합동 세일즈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인천 지역업체 하도급·자재·인력·장비의 사용이 확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형 건설사 간담회 개최, 지역건설협회와의 간담회 추진, 2021년 하도급률 저조 현장에 대한 특별관리, 대형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세일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